

축 사

오 대 규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

말기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호스피스협회가 창립10주년을 맞이하여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의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Hospice/Palliative Care와 공동주최로 오늘과 내일 개최하는 국제학술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구나 그 동안 말기환자들의 고통을 사랑으로 돌보기 위하여 활동해온 가톨릭 중앙의료원을 비롯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 관련단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번 어린이 호스피스를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고 있는 관련기관에 속한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동안 약 1200여명의 어린이들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있으며 이중 거의 절반인 48.6%가 4세 미만의 소아입니다. 제도적인 선별검사의 실시 등이 없어 조기발견의 기회가 적은 편이지만 소아암의 예후는 완치의 가능성이 높아 전체적으로 5년 생존율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동안 사망하는 국민의 수가 약 25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약 4분의 1에 달하는 국민은 말기 암과 같은 불치의 병으로 인하여 심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암환자의 절반이상이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적절한 통증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말기암환자의 사망 전 1년간 지출되는 의료비의 절반이 임종 전 2개월 동안에 지출되고 있어 의료비가 적절히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호스피스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꺼져 가

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존중활동임과 동시에 말기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비의 적절한 사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 및 선진국에서는 호스피스를 말기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는 호스피스 대상자·서비스·종사인력에 대한 표준화가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의료인력 및 환자를 위한 통증관리 지침을 개발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호스피스 표준화 모델 개발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 내에 삶의질향상연구과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각 시·도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방문간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도 보다 활성화하여 호스피스활동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말기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 외에도 국민의 인식의 전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께서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통한 호스피스 활동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라며, 호스피스의 발전에 있어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호스피스협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의 WHO Collaborating Center for Hospice/Palliative Care와 공동주최로 개최되는 호스피스국제학술행사가 성공리에 마쳐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